

[2024년 통계청 민생정책 100% 활용하기]

향후 20년 후 대한민국 인구의 다양성은?

-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(2022~2042년) 제공
- 내국인, 외국인, 이주배경인구 등 정책대상별 인구 전망을 통해 인구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뒷받침

통계청(청장 이형일)은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, 이민정책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**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정책대상별 인구로 세분화**하여 「내·외국인 인구전망(2022~2042년)」을 제공한다고 밝혔다.

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(23.12월) 총인구를 내국인,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하여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, 부양비 등 인구지표 전망을 4월에 공표할 예정이다.

이번 전망의 특징은 첫째, 작성 주기를 단축하여 2022년 기준으로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관련 장기재정전망, 외국인, 다문화 교육·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, 둘째, 인구 유형별* 인구의 연령 세분화(0~5세 영유아인구 등)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다.

* 내국인(출생, 귀화, 이민자2세)인구, 외국인인구

이형일 통계청장은 “2024년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, 외국인 정책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	책임자	과 장	임영일 (042-481-2250)
		담당자	서기관	유수덕 (042-481-2261)

1. 작성 목적

- 장래인구추계의 작성항목을 국적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연금, 복지 등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
-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이민정책 환경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확충

2. 작성 근거

- 통계법 제18조 1항에 의한 승인통계(승인번호 제101033호, 장래인구추계)

3. 연혁

- 2020년: 「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·외국인 인구전망(2017~2040년)」 처음으로 작성
- 2022년: 「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·외국인 인구전망(2020~2040년)」 작성

4. 작성대상

- 총인구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화
 - * 내·외국인은 국적에 따라 구분하며, 내국인은 출생·국적취득(귀화)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정의
- 내국인을 본인·부모 국적에 따라 출생, 귀화, 이민자2세로 세분
- 이주배경인구는 귀화, 이민자2세, 외국인의 합으로 산출

5. 작성지표

- 국적유형 및 이주배경인구 현황 및 전망
 - * 이주배경인구(Person with a migration background)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으로 정의
- 장래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, 출생, 사망, 국제이동 가정을 조합한 총 3개(중위, 고위, 저위) 시나리오 제공

6. 자료 제공

- 국가통계포털(KOSIS, www.kosis.kr) : 온라인 간행물 > 주제별 > 인구 > 장래인구추계 > [부록] 내·외국인 인구전망